

UNITED

[연합]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WITH BIBLE CAMP 2019
LETTER201906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실 한 몸 안에 있지 않으면 정상이 아닙니다.

구원은 일차적으로 개인적이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개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았을 뿐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부르심은 나눌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라면 우리는 또한 서로서로 연합한 자들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연합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신약 성경의 많은 명령들을 보십시오. 개인의 거룩함에 대한 말씀들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조금 더 생각해보면 대부분이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명령들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납하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복종하라” 등의 명령들이 그렇습니다. 나 혼자서도 충분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한 몸 안에 있지 않으면 정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목적 하나됨은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입니다!

삼위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여 하나님을 나타내야 했습니다. 신약과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지만, 죄가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이 된 것이 죄의 시작이었고 그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그런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바로 앞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하나 됨’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 됨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됨이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이 되는 이유,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하나 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사랑, 용서, 자비, 긍휼, 겸손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혼자라고 느껴진다면...

2019년 위드바이블 캠프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지금 혼자라고 느껴진다면,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하고 싶다면,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면, 이번 캠프에 꼭 참석해 보세요.

결코 혼자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실을 깨닫기 원합니다. 함께 부르



함께 하고 싶다면...

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주신 "서로" 명령이 얼마나 많고 다양한지 배우기 원합니다. 하나 됨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기 원하시는지 알기 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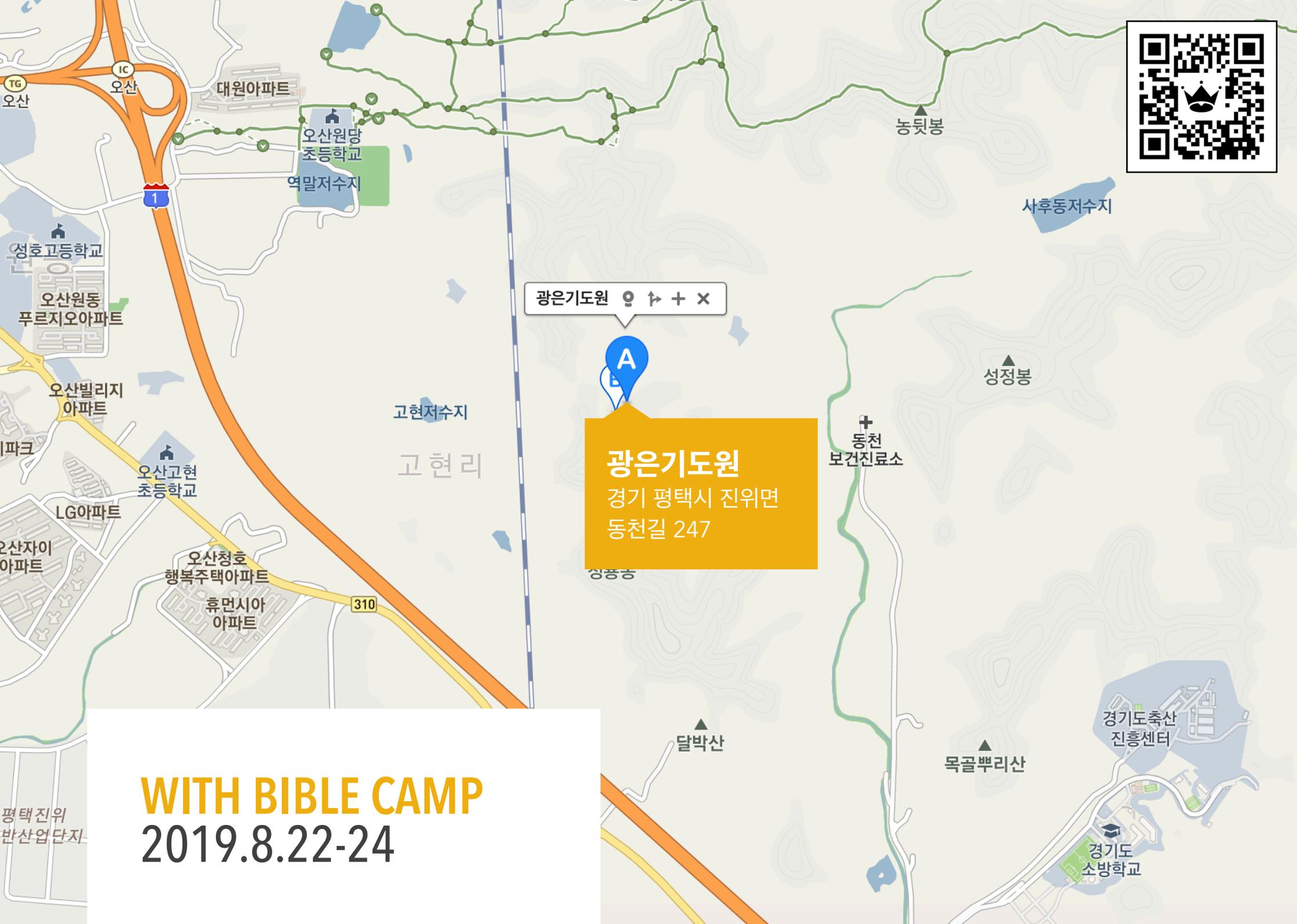
2019년 8월 22일~24일, 광은 기도원에서 함께 모여 '하나 됨'을 배우고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고 싶다면...

경험해 봅시다. 4번의 말씀과 2번의 강의(결혼, 은사), 그리고 워크샵 등 다양한 배움과 나눔의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위드바이블 캠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 원하는 젊은 크리스천, 바로 당신을 위한 캠프입니다.



광은기도원 9 1 + x

광은기도원
경기 평택시 진위면
동천길 247

WITH BIBLE CAMP
2019.8.22-24

평택진위
반산업단지

오산

대원아파트

오산원당
초등학교

역말저수지

농뫼봉

사후동저수지

성호고등학교

오산원동
푸르지오아파트

고현저수지

고현리

성정봉

동천
보건진료소

오산고현
초등학교

LG아파트

오산청호
행복주택아파트

휴먼시아
아파트

310

달박산

목골뿌리산

경기도축산
진흥센터

경기도
소방학교